"北 매우 도발적…결코 보상 없다"

오바마 대북정책 '강경 U턴' 경고…北 '핵 폐기냐 도발 강행이냐' 주목

프랑스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인 참전용사 공동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에 참석,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불리한 상황인데도 승리한 연합군에 경의를 표했다. /연합뉴스

20년 가까이 끌어온 북한과 미국의 핵대결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양상이다.

'진정한 변화'를 기치로 내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 한동안 추이를 지켜보던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위기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다.

결국 북·미의 최고 수뇌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 나아가 북한의 장래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의 선택 강요하는 오바마=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끊임없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그런 뒤에 우리가 그들을 보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길을 단순히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과 몇개월전 정권인수팀 시절 강조했던 '단호하고도 직접적인' 협상 기조를 재검토할 가능성마저 느껴진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외교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가 "지난 수개월간의 북한의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한 것이나 "도발에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갈 경우 부시 행정부 당시 상정했던 그 어떤 카드보다 강경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외교가의 반응이다.

◇북한의 대응은=결국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 있는 양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껴지듯 과감한 결단을 내려 핵폐기의 길을 택한다면 '과감한 협상과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감한 제재'가 북한 앞에 놓이게 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까지 드러난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강력한 대결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탄두 소형화, 그리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 착수 선언 등이 북한의 후속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로 '끝장을 보자'고 나설 경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다.

결국 한동안 지속될 북한과 미국간 치열한 대결국면은 중국의 개입이나 북한과 미국, 또는 주변국에서 나올 예기치 않은 변수에 의해 반전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되든 그 여파는 향후 북핵 문제, 나아가 북한 정권의 미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연합뉴스

"아버지가 동생 정운 마음에 들어해"

마카오 체류 北 김정남, 측근 체포 여부는 몰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은 지난 6일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동생인 3남 김정운에 대해 "아버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해 후계자 내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남은 이날 체류 중인 마카오에서 일본 니혼테레비(N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후계자 문제는 "아버지가 결정할 일"로 자신은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김정운이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정보에 대해 "뉴스를 통해 들었다"면서 확인은 회피했다.

김정남은 그러면서 "후계자 문제는 순전히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며, 그렇게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카오에서 여행하고 있다는 그는 자신의 측근들이 숙청됐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북한 내가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체포됐는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김정남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북한 내에서 김정운을 정점으로 하는 새 체제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김정남이 체류 중인 마카오에 머물면서 중국에 망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北, ICBM 이송 후 '교란 작전' 구사하나

동창리기지, 미사일 추적 레이더 등 미설치
깃대령에서는 발사대 장착 차량 출몰 반복

북한이 지난 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새 미사일기지로 이송한 이후 이 기지와 다른 미사일기지 등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동창리 기지에는 7일 현재까지 미사일 발사에 꼭 필요한 레이더와 이를 지원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의 미사일 기지에서는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차량 5~6대가 숨바꼭질하듯 출몰을 반복하는 정황이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이다.

북한이 ICBM을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와 차량을 이용해 옮긴 동창리 기지에는 미사일을 제어, 통제, 추적하는 레이더와 관련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정보당국이 동창리 기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ICBM 발사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발사 며칠 전에 동창리 기지로 이동식 레이더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지만 ICBM을 이동식 레이더로 제어,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아직 완공되지도 않는 동창리 기지로 서둘러 이송한 의도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군과 정보당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발사 위협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동창리 기지 준공과 관련한 행사용으로 ICBM을 미리 가져다 놓은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도 '교란전술'로 의심되는 행동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깃대령에서 사거리 3천km 이상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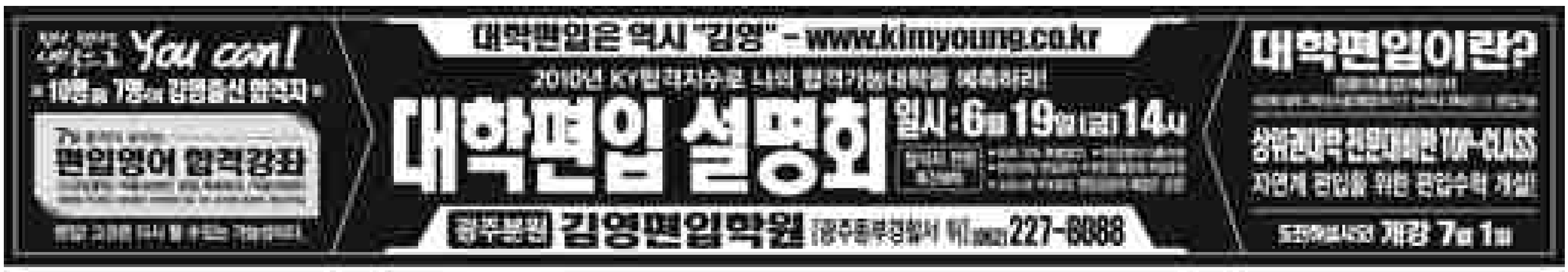
당국은 깃대령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한·미 첩보망을 의도적으로 교란하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부터 서해안에서 발사가 예상됐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며 "동창리와 깃대령을 비롯한 주요 미사일기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실종 프랑스 여객기 시신 2구 발견"

실종된 에어프랑스 AF447편의 여객기 잔해와 탑승객들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브라질 공군 대변인이 6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기는 이번 여객기 실종 사고 이후 처음이다.

공군 대변인인 조르제 아마랄 대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색작업 엿새만에 처음으로 시신들이 항공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와 함께 발견됐다"면서 "시신은 모두 승객으로 보이는 남성들"이라고 밝혔다.

두 구의 시신은 이날 오전 9시30분과 11시13분께 수습됐으며, 시신 주변에서는 여행용 손가방과 배낭 등이 함께 발견됐다고 아마랄 대령은 전했다. 함께 수거된 항공기 잔해는 고유번호가 기재된 파란색 의자 1개로, 이 의자에 찍힌 고유번호는 실종된 여객기의 좌석 번호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구조팀은 밝혔다. /연합뉴스